

새마을 사업
일지

추계 구충 작업

섭외공보부



구충작업후 오락을 즐기는 한때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새마을사업에 적극호응하여 본회에서는 1972년 6월, 경기도 파주군 아동면 백금 2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절명없는 마을을 이룩코저 노력해 왔다.

금번 10월사업은 자매부락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구충작업을 10월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5개간 오대학 교수인 섭외공보위원들의 인솔하에 간호대학생 8명의 활가로 현미경을 지참하고 백금리부락민 267명의 체변을 직접 현장에서 검사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투약을 실시했다.

구충약 투약은 비페라정으로 정확한 용량과 정확한 시간에 직접 간호학생들이 명단에 따라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한사람씩 복용시키고

확인하였다. 보건교육을 미리 몇분간 한후 회충감염예방에 위생적인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현재 회충보유자로서 구충약을 먹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갖게하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데는 안간힘이 들었다. 유인물도 차후관리를 위해서 배부했다.

투약시간은 오후 9시반부터 학생 2명씩 각 한조가 되어서 다섯조로 나누어 백금리부락 48가호를 각조당 7~8가호씩 배당하여 방문하는 데는 약 2시간반이란 시간이 소모되었다. 날씨는 음산하여 밤비가 내렸고 낫설은 눈두렁길을 더듬으려서 일단 집집마다 들어섰을때 그들은 하루종일 힘든 일들을 한뒤라서 그냥 곧드네 단잠을 이루고 있었던 때였다. 90세 할아버지로부터 2세 어린아이까지 한사람 한사람 더듬어 깨워 가면서 투약 한 다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숙소로 돌아 왔다.

7일은 아침 일찍 5시에 일어나 건날밤 투약한 분들을 다시 찾아가 나머지 약을 투약했다.

기생충감염 예방에 대한 철저한 교환을 남기고 구충작업은 이로써 마쳤다. 한편 한참 바쁜 농번기에 부모님들로부터 버려진 어린 애들을 모아서 하루종일 함께 놀아주고 노래와 유희를 가르치면서 정신적인 건강과 더불어 보건교육을 시키고 7일 오후 2시에 백금리를 출발하여 오후 3시에 서울에 도착했다.

일시 : 1973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지도 : 섭외공보위원장 및 위원 3명과 섭외부장 (김순자, 한윤복, 이광옥, 김소인, 이덕희)

학생 : 경의의대간호학과 학생 3명
국립의료원 간호학교학생 1명
이화여대 간호학과 학생 2명
카톨릭의대 간호학과학생 2명

각계와의 교류

- 민주공화당 주희 여성지도자 3차 연수회에 부총무, 교육부장 참석하다. (8. 21~24)
- 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 사회복지대회 한국준비위원회에 회장참석하다. (9. 3~7)
주제 : "사회변천에 따르는 사회복지 기준의 개발"
- 주부클럽연합회 제5차정기총회에 축전보내다.

(9. 18)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정기총회에 축전보내다. (9. 19)
- 가정법률상담소 제17회 축하연회에 총무참석하다 (10. 5).
- 여성저축 이사및실행위원회에 간호업무부장 참석하다. (10. 5).
- 제3차 세계 침구학술대회(대한한의사협회주최) 회장, 총무, 부총무 참석하다. (9. 25)

구충작업을 끝내고

신 정 자
 <경희의대간호학과 3학년>

1973년 10월6일 오전 10시. 우리 기생충 검사 team은 간호협회를 떠나 상쾌한 사과의 맛을 듣기는 백청의 가을 속을 달리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맑은 마음을 재 정리하며 알찬 보람으로 맺힌 풍요한 들판을, 코스모스를 만끽하며 백금리 상목동으로 향한 것이다.

일주일간의 training으로 기생충을 진단하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나 그동안 운동의 시간을 기생충 찾기에 전념했던 우리들로서는 가슴 설레는 일이기도 했다. 맥금리 새마을 회관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좋지 않은 냄새와 현미경을 들여다 보노라 머리가 가끔 무겁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호응과 돌봐주심에, 지치는 줄 모르고 우린 쌓여진 sample을 하나 하나 check해 나갔다. 그러나, 현미경 두대로 짧은 시간에 전부 진단 하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검사 도중 놀란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농촌의 기생충 검사 실패와는 달리 의외로 충란이 적었다는 사실

이다. 아마도 그동안 기뢰있을때 마다 간호협회나 다른기관, 또는 봉사 team들에 의해 건강교육이 타 지역보다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투약은 저녁식사 후 밤 9시부터 부녀회의 안내로 가가호호 방문하여 직접 투약하는 것을 확인했고 다음날 새벽 6시에 다시 재 투약했다. 농촌은 새벽일을 나가게 되므로 일찍 잠자리에 들어있어서 투약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나 투약의 목적과 시간이 늦은 이유를 설명해 드렸더니 기꺼이 응해주셨다. 우리는 또 투약과 동시에 건강교육함을 빠뜨리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늘 들어오면서도 아직 제대로 실천이 안되고 있음을 미안해 하며 주민들 스스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 가정방문을 해보니 개선된 점도 많이 있었다. 다음날은 오후 2시에 차가 오기로 되어있어서 오전 중 부지런히 나머지 검사를 하였지만 끝내지는 못하고 sample을 그냥 가지고 오는 수 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검사결과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일일이 Teaching하지 못한점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 다음 기회엔 좀 더 많이 현미경이 준비되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여전에서 충실한 검사가 되기를 바란다. 투약을 하는데 있어서도 각 기생충에 맞는 약을 준비해야겠고 오랜기간의 training를 받아 좀 더 완벽한 진단이 되어겠다고 생각했다. 이번엔, 비록 현지에서 검사를 끝내지는 못하였으나 현지검사가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던 것 같았으며 우리들로서도 좋은 경험이 되었기에 보람된 1박2일이 되었음을 흐뭇하게 생각하며 돌아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간호협회에 감사분 드린다.

(국립의료원 간호학교생의 전공한 「구충작업일지」도 받았으나 지면 관계로 게재치 못함을 알립니다.)



○대한적십자사주최 “국제인도법세미나”에 총무참석하다. (10.8~9)

주제 : 제네바협약 보급의 효율적 방법 모색

○고·연전 추계대회장에서 화상임고 입원한 간호학생들에게 총무단이 위문하다. (10.8)

○여성저축생활중앙회 주최 “전국여성저축일선지도 세미나”에 부총무 참석하다. (10.11~12)

○서울 YWCA주최 “복지연금제도를진단한다”는 토론회에 총무참석하다. (10.11)

◆전남지부에서

「세미나」개최예정◆

주제 ; 새시대를 향한 간호원의 역할

때 : 1973. 11. 9~10 (2일간)

곳 : 전남지부

대상 : 전남, 전북지부회원

주최 : 본회, 전남지부 공동주최

주제강연 : 홍신영 박사